

Raonatti in Baguio



By. 꾸꾸까까

01

팀원소개&센터소개

02

활동내용&생활내용

03

피드백&개인소감

라온아띠 in baguio

팀원소개

이름: Jojo

나이: 반오십 (현지나이)

특징: 우리의 말꾸야

우리의 통역사

※주의※ 기분변화 큼



이름: Jimmy

나이: 23 (현지나이)

특징: 종합병원

아이들의 놀이기구



이름: Bebe

나이: 22 (현지나이)

특징: 매끼 하드캐리.

현지인같은 따갈로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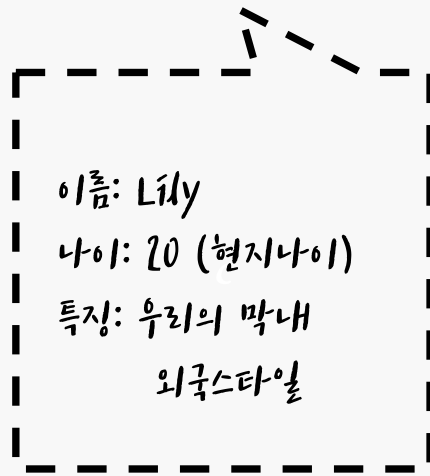


이름: Lily

나이: 20 (현지나이)

특징: 우리의 막내

외국스타일



센터소개



이름: aída(우리의 엄마)
 특징: 커피가 비타민 C인
 커피를 사랑하는,
 스타벅스 매니아.

이름: sison robert
 (우리의 코디네이터)
 특징: 미친 드라이버실력



센터소개



이름: 아떼들

(Grace, Rosell,
April, Alvin)

특징: 우리의 용돈 책임자

이름: pre-school 선생님들

특징: 현지어 & 영어 선생님
정신적 지주



센터소개



● YMCA
건물소개

2F function hall
1F Office
지하 pre-school
헬스장, GYM
Hostel, Dorm

● 바기오
YMCA는?

바기오의 중심인 세션 로드에서 위치하고 있다. 바기오YMCA는 Antamok itogon에서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 청년활동, 봉사활동,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바기오 YMCA 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다. Pre-school 의 경우 6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있다. 우리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한 반씩 돌아가며 수업보조 및 수업을 했다. 처음 수업 진행이 한국과 다르게 놀이시간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이가 필요할 것 같다는 피드백을 요청했지만, 현지의 교육커리큘럼 때문에 현재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시간과 예체능시간이 따로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 종이접기, 율동 등으로 준비하여 진행했다.



UCCP는 united church of christ philippines로서 기독교의 한 종교이다. 10월 한 달간은 UCCP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만큼 유치원부터 저학년의 경우 주로 종이접기 활동을 했고, 고학년의 경우 한국 문화, 언어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 한국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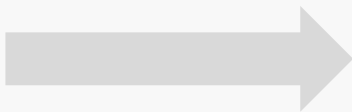




11월부터 1월까지 우리의 주된 활동이었던 day-care center는 Loacan 이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센터이다. 데이케어의 경우 3-5세의 아이들 25명 정도가 한 반으로 있으며, pre-school과는 다른 교육커리큘럼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데이케어에서는 보조교사로 활동하거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했다.

활동소개_Beda day care center

시청과 마을에 허가를 받고, 1월부터 재건축이 실시되었다. 재건축은 센터 부모님들이 요일별로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남자 단원들은 재건축 일을 함께하고, 여자 단원들은 데이케어 활동을 이어갔다. 2월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마을주민, YMCA, 라온아피가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1월부터 재건축이 진행됐다.



Poverty campaign 준비는 benget 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했다. 현지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빈곤은 무엇인지, 한국에 빈곤은 무엇인지 서로 공유하며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활동소개_Poverty campaign



우리가 생활한 Loacan 마을에서도 poverty campaign 준비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어 라온아띠의 빈곤캠페인을 홍보하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활동을 했다.

활동소개_Poverty campaign



빈곤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대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분리수거와 조기임신이 빈곤캠페인의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마을에서 듣고 보이는 빈곤은 도시와는 또 달랐다. 그래서 우리 팀은 마을의 빈곤인 momma를 주제로 선택하여 고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활동소개_Poverty campaign



활동소개_Poverty campaign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momma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지고, 캠페인을 함께 할 학생들 모집을 했다.
그 후 거리캠페인을 계획하여 준비를 했다.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학교 근처에 있는 학생들과 캠페인을 함께 하고,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활동소개_Homestay in Loacan



1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홈스테이는 남자 단원과 여자 단원으로 나누어 두 집에서 진행되었다. 마을사람들 생활패턴에 맞추어 살게 되면서 처음에 불편했던 것들이 조금은 익숙해졌다.





필리핀 팀은 다른 팀과 다르게 도미토리에서 생활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만나게 재밌었다. 중간에는 일본에서 온 사토미라는 친구와 함께 활동을 했다.



YMCA에 있는 주방을 이용하여 때때로 한국 음식을 해먹고, YMCA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초반 여가시간 활용은 YMCA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주변 돌아다니기, 손빨래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활동보다는 YMCA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다.











팀원소감나눔



감사합니다
Malaming salamat po
Thank you